

최근 성경신학의 문제점

黃昌起
(고신대 조교수)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인 동시에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은 “구원”과 “심판”으로 요약 되어진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경신학은 이 두 가지 사역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주님의 두 사역을,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주제들을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한 쪽에 편중되어 있지 않는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오늘날 성경신학자들은 구원에 관한 주제들만 다루기를 좋아한다. 사실 공환복음서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 및 요한 서신서에서의 영생, 진리, 성령론, 또 바울 서신의 청의 (justification), 성령(은사), 거룩,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 등 구원과 관련된 주제들이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는 G.E Ladd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는 점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쏟아져 나온 것에 즈음하여 신약 연구에 관한 최근의 조사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의 발견’ (the discovery of the true meaning of the kingdom of God)으로 묘사할 수 있다.”¹⁾

1) G. E. Ladd. *The Presence of the Futur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4), p. 3

I

그와는 반대로, 성경신학자들이 주님의 심판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 게을리하고 있는 점이 현대 신약 연구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신학 연구활동의 특징이요,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러한 추세는 금세기 초의 수십 년 어간에 다루어진 신약 해석사 및 종말론에 관한 논쟁들을 살펴봄으로 분명히 알 수 있다.²⁾

그러나 몇 가지 예로써도 이 경향을 충분히 알 수 있다.

1. George E. Ladd 교수는 북미주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복음주의 성경신학자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그의 신약신학에 대한 기여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성경신학은 보수주의의 입장에서 구축되었다. 그는 신학 방법론은 “그시발이 성경적-역사적 방법”(biblical-historical in orientation)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 그리고 그는 현대 신학 방법론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역사비평적 방법론(historical critical method)이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공격한다.⁴⁾ 그런데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 2) A. M. Hunter *Interpreting the New Testament* (London: SCM Press Ltd, 1951), pp. 1~144. C. Brown et al eds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 2.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6), pp. 901~931. G. E. Ladd op. cit pp. 3~42
A. Theology of New Testa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4), pp. 13~33
 H. N. Ridderbos, *The Coming of the Kingdom* Trans. from Dutch by H. de Jongste, edited. by R. O. Zorn.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62), pp. xi~xxxiv
 Tj. Van der Walt, *Die Koninkryk van God-NABY!* (Kampen: J. H. Kok NV, 1962), pp. 1~31.
 O. Cullmann, *Salvation in History* Trans. from German by S. G. Sowers and the Staff of the SCM Press, (London: SCM Press Ltd, 1967), pp. 19~64.
 3) G. E. Eadd. *A Theology of the new Testanrant* (1974), p. 25.

신약신학(*A theolog of the New Testament*)이나 다른 여러 저서들에 나타난대로 그의 관심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와 관련된 주제들에 집중되어 있다. Ladd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님의 모든 메세지와 사역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심판에 관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란 한갓 부록에 지나지 않는 듯하다.⁵⁾

1-2. 유럽의 신학계에서는 O. Cullmann이 금세기의 신약신학을 구원사적 접근 (redemptive historical approach)으로 시도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Salvation in history*⁶⁾에서 Cullmann은 신약 메세지의 “공통적인 진수”(common essence)는 “구원역사”(Heilsgeschichte)로 대변된다고 한다.⁷⁾ 그는 이 방법을 옹호함으로써 R. Bultmann과 그의 추종자들이 고수하는 실존주의적 방법론에 강하게 도전하고 있다.⁸⁾ Cullmann은 시간 이해를 “이미”(already) 도래한 것과 “아직”(not yet) 도래하지 않은 것과의 긴장관계로 보려는 초대 교회의 해석을 재구성함으로 구원역사(Heilsgeschichte)의 체계를 요약하고자 한다. 그리스도는 시간의 중심 또는 시간의 “중간점”(mid-point)이다.⁹⁾ 그러나 그의 근본적인 관심은 “시간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 구원사’(biblical redemptive history)를 제시하는 데 있다”¹⁰⁾ 그는 예수그리스

4) _____ ibid. Ladd는 여기서 G. Hasel의 말을 (*Basic Issues in the Current Debate* (1972):(p. 85) 인용하여 “These is a transcendent or divine dimension in Biblical history which the historical-critical method is unable to deal with”라고 주장하면서, “Only this approach (biblical-historical method) can deal adequately with the reality of God and his breaking into history”라고 강조하고 있다.

5) 참조,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1974), pp. 87~90.

6) O. Cullmann op. cit.

7) pp. 19~20

8) O. Cullmann. *Christ and Time* Trans. from German by F. V. Fils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2), pp. 1~14.

9) Ibid, pp. 121~174

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매우 강조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는 “신약의 견해에 따르면, 구원역사를 구성하는 모든 시대(epoch)는 절정적인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여 시작된다.”¹¹⁾ 고 선언하였다. Cullmann은 “신약의 요소(the element in the New Testament)는 다름이 아니라 ‘이미 결정적으로 성취된 것’과 ‘아직 이룩되지 못한 것’ 사이의 긴장 즉 현재와 미래의 긴장관계”이며¹²⁾ 이것을 곧 “신약 구원사 이해의 열쇠”로 간주하고 있다.¹³⁾ Cullmann이 말하는 구원사가 무엇인지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그가 앞에서 말한 그 긴장관계에서 주님의 심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하기야 “구원역사란 역시 재난의 역사”(a history of disaster)라고 말하기는 한다.¹⁴⁾ 그러나 사실은 주님의 심판을 부인하고 있다. 즉 “전 구원역사 발전의 변천과정에서…… 나중에 구원 심판에 대한 선포없이, 구원역사의 선포만으로 이루어 지게 되었다.”¹⁵⁾ 따라서 Cullmann의 *Salvation in history*에서는 주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렇다 할 만한 토의가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¹⁶⁾ 주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성경의 유기적 영감을 부인하고, 성경 연구에 역사비평적 방법을 채용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강조하

10) Ibid, p. xvi

11) *Salvation in history* (1967), p. 166.

12) Ibid, p. 172.

13) Ibid, p. 166.

14) Ibid, p. 78. cf. p. 123.

15) Ibid, p. 123.

16) cf. Ibid, pp. 201, 225.

17) C. H. Dodd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그의 로마서 주석(1932) 등에서 하나님의 진노개념은 인류 역사상 정벌의 비인격적인 과정(an impersonal process of retribution)이자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벌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으며, 또 그는 화목제물(propitiation) 개념을 부정하고 있다. (cf.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 1984) pp. 326~327. 그리고 또 최근에는 C. F. D Moule도 신약사상에서 정벌과 보응에 대한 범위를 할 수 있는 한 줄이려고 시도하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Essays in New Testament*,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p. 235~249).

고, 또 심판은 주님이 다 받은 것으로,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¹⁷⁾

요약해서 말하자면 현대 성경신학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주님의 심판에 대한 주제들에 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 반면에 구원과 연관된 주제들에 관하여는 활발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새삼스러운 것은 못되지만,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단번에 이룩하신 사역은 구속과 심판으로 표현된다는 염연한 진리 앞에서 반드시 짚어보고 넘어갈 사실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심판의 주제가 구원의 주제만큼 똑같이 중요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사실상 심판의 주제가 구원의 주제만큼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 성경신학 연구의 부적절한 균형 즉, 한 쪽으로 치우친 점이라 하겠다.

II

위에서 언급한, 균형 잡은 성경신학 연구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 특히 주님의 심판 개념에 관해서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님의 심판(the judgment of the Lord)이라 하면 이는 으례히 종말론적이나 묵시문학적 주제(an eschatological or apocalyptic subject)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 또는 영생 및 구원의 개념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person and work of the Lord Jesus Christ)에 이미 도래하였다고 본다. 그래서 영생이나 죄로부터의 구원은 이미 이 땅 위에서 믿는 자들에게 도래하는 것이지, 결코 먼 미래의 것 만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심판은 대개 역사 종말 이후의 것으로만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약과 유대인의 종말론에 의하면, 구원의 시간(redemptive time)은 적

선위로만 달리며 그 중심점은 오직 하나 뿐이다. 그 중심점은 현재와 오는 세상(the age to come) 사이를 나누는 주님의 날(the day of the Lord)과 일치하는 것이다. 메시야가 오는 그 위대한 날이 도래함과 동시에 현 세상(기고 고기유)은 끝나고 새 세상(새고 새기유)이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약은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되는 구속의 선이 크게 수정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오는 세상(the age to come)은 그의 사역과 인격과 함께 이미 도래하였기 때문이다.¹⁸⁾ 구원 선상에서 본다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구원, 영생)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그 현재적인 양상을 가지는 것과 같이, 주님의 심판의 현재성도 꼭 그와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성경신학 연구에서 구원 주제 일방도의 연구 편중성을 마땅히 시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다. 즉 구원 주제에 관한 견해(perspective)는 철저하게 미래적인 종밀론의 유대 탐비적 개념(Jewish rabbinic concept of the thoroughly futuristic eschatology)에서 따로 분리되어진 반면에, 심판에 관한 견해는 아직도 유대 탐비적 개념과 혼합되어, 뚜렷한 구별이 없는 모순 속에 있다는 것이다.

III

18) G. E. Ladd,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1974), p. 68, J. C. Coetzee, *Paulus se Eskatologiese Prediking : Handleiding by Nuwe Testament Band V.* eds. Du Toit et al, (Pretoria : N. G. Kerkboek handel Transvaal, 1984) pp. 346~347. L. Floor도 같은 원리를 말하고 있다. "Die Koms van die Nuwe Eeu (Aion)"n twee-fase Koms is, wat, meebring dat daar in die tyd tussen die 'koms' en die 'wederkoms' van die Messias'n tyd... van spanning tussen die sogenome reeds en die sogenoamde 'nognie' van die Nuwe Eeu is" *Die Evangelie van die Koninkryk : 5 Aspekte*. (Pretoria : N. G. Kerkboekhandel, 1981), p. 19.

그러한 문제점은 또 다른 문제를 자아내게 되어 결국 문제의 억쇄 반응을 촉진시키고 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유대 탐비적으로 이해하면 그것이 성도들의 현재 일상 생활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심판을 미래적인 개념(futuristic concept of the Lord's judgment)으로 이해하는 것도 신자들이 그것과 현재 생활과 전연 무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신자들이 범죄함으로 현세에도 주님의 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별로 주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님의 심판이란 단순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리시는 심판 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once and for all) 이룩하신 것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을 심판도 그렇게 단번에 다 짊어지신 것이다. 그러므로 Tj van der Walt에 의하면, 최후의 심판을 세례 요한의 사역과 꽂고다의 십자가와 예루살렘 멸망(AD 70)에서 이미(already) 집행되었다고 본다.¹⁹⁾ 놀라운 사실은 W. J. Snyman과 L. Floor는 사도행전 2 장의 "베드로의 오순절날 부활 설교가 곧 심판의 선언이며,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설교가 곧 심판이 임했다는 무서운 설교이며, 말세(die laaste dae)가 시작되었다고보는 점이다.²⁰⁾ 이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룩하신 사역의 구원과 심판이 모두 현재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또한 영벌을 받으시었다. 우리는 주께서 이룩하신 구원사역으로 말미암아 현재

19) 여기서 물론 심판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다.

"Die Voleinding van die Koninkryk" : Die Koninkryk van God, reds. S. Du Toit et al, (Potchefstroom : Potchefstroom Herald (Edms) Bpk., 1969), pp. 101~102, 105

20) "Die opstandings prediking van Petrus is ook Serigsverkondiging(Hand2 : 20). Die prediking van die oorwinning van die dood is ook 'n ontsettende boodskap : die oordeel kom. Die leaste dae het aangebreek (Hand 2 : 17)" W. J. Snyman & L. Floor "Die Koninkryk van God in die Nuwe Testament" : *Die Koninkryk van God* eds. S. Du Toit et al, Potchefstroom : Potchefstroom Herald (Edms) Bpk., 1969, p. 50.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미 맛보고 누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같은 주님께서 동일한 십자가 위에서 처벌받으신 영원한 형벌의 길로, 지금 또 다시 걸고 있는 사람과 주님의 심판이 무관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도 주님의 사역을 제한할 권리도 능력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은 주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들도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이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롬 8:1). 주님의 말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요 5:24)고 성경은 가르친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즉 십자가 상에서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택함받은 신자라도 죄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 여러 군데서 증거하고 있다(히10:30, 베전4:17, 고전11:27이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인정하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현재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계시사(history of revelation) 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님나라는 계시사적으로 볼 때 핵심 사건이라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및 승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계시역사는 하나님의 언약(covenant)을 제외할 수 없으며, 언약은 언제나 언약의 축복(covenant blessing)과 언약의 저주(covenant curse)를 따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구약으로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 언약의 백성이 받을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다루지 않고 다음 기회로 미룬다.

요약하자면 ① 현재 성경신학이 구원에 관련된 주제에만 치중하고 심판과 관련된 주제를 등한히 해 왔다는 점과, ② 심판에 관한 이해를 유대교 및 랍비적이고(rabbinic) 미래 지향적인 이해에서 벗어나서, 심판의 현재성을 인정해서, ③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일상 생활 중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들의 구원을 이루는 데(빌 2:12) 최선을 다 해야 하겠다.

사도행전을 통해본 교회성장원리

이상규
(고신대 조교수)

1. 사도행전의 의의와 가치
2.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성장과 지리적 확장
3.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성장 원리

※ 이 논문은 필자가 미국의 Concordia Th. Seminary에서 연구하는 동안에 Term Paper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에게 한결같은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성장 혹은 교회부흥일 것이다. 그래서 교회성장은 일선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고 그런 결과로 지난 70년대는 한국교회가 속적으로 크게 성장했던 시기였던 것 같다. 1973년에 한국의 기독신자의 수는 350만이었으나 1978년에는 600만, 1980년에는 700만, 1983년에는 800만을 헤아리게 되었으니 가히 경이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급격한 성장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고 기독교의 무속화나 혹은 산술적 물량주의라는 부정적 평가와 함께 ‘이름만의 신자’(Unbelieving Christian)를 양산하므로 도리어 사회적 영향력의 약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이제 한국기독교가 제2세기를 맞으면서 지난 70년대의 교회성장을 학문적으로 평가하고 보다 성경적인 교회성장 개념 혹은 교회성장 원리를 신학적으로 재정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본고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성장 원리를 찾아보려는 목